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비자 심리지수 7개월 만에 가장 낮아
- Bloomberg: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전에 수개월간 인플레이 개선 희망”
- Bloomberg: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6개월 이내 가장 낮게 발표될 듯
- CNN Business: 트럼프, CEO들 미팅에서 법인세 20%로 감세 약속

#### [뉴욕시]

- WSJ: 뉴욕시 교통난 갈수록 악화

#### [미국 생활]

- CNN Business: 미국과 호주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도시들

#### [휘발유]

- CNN Business: 휘발유가, 작년 여름보다 낮다 ... 2022년의 악몽에서 회복

#### [글로벌 경제]

- CNBC: 국제 선박 운임 2만불 초과 우려... 내년에도 회복 힘들 듯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머스크, 테슬라 주주들에게 1조불 규모 ‘로봇’ 전망 제시
- Bloomberg: MS, 개인용 컴퓨터용 Windows AI 기능 출시 연기
- WSJ: 아마존, Prime Video 전략 강화로 스트리밍 광고 시장 뒤흔들어
- CNBC: Five Below, 올해 성장세 둔화와 주가 하락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Unexpectedly Falls to Seven-Month Low**

##### **미 소비자 심리지수 7개월 만에 가장 낮아**

- 6월 초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 않게 7개월 만에 가장 떨어져 고물가가 개인 재정을 계속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시간대 관련 예비치에 따르면 미 심리지수가 5월에 69.1에서 65.6으로 감소했다. 예상치는 72였다.
-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연간 물가는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월 조사의 3%보다 약간 상승했다. 내년에는 물가가

3.3% 상승할 것으로 보여 지난달 조사가 같은 수준이었다.

- 자산의 개인 재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치도 12포인트 하락한 79였으며 개인 수입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경제 여건에 대한 입장도 지난 2022년 이래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Mester Wants Few More Months of Good Inflation Before Cuts**

####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전에 수개월간 인플레이 개선 희망”**

-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 Loretta Mester는 최근 물가 둔화 지표 발표를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전에 향후 수개월간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그는 오늘 CNBC와의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단기 인플레이 기대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인플레이 데이터가 수개월간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런 다음에 노동시장과 인플레이 상황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희망했다. 그는 10년간의 총재직에서 곧 물러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Favored Inflation Gauge Set to Rise by Least in Six Months**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6개월 이내 가장 낮게 발표될 듯**

- 이번 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황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향후 물가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래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감안해 핵심 개인소비지출 지표가 5월에 0.1% 상승에 머무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 관리들의 인플레이 예상은 최근 지표 발표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선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9월에 0.25% 금리 인상에 65%, 12월 금리 인하는 80%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In CEO meeting, Trump promised more tax cuts 트럼프, CEO들 미팅에서 법인세 20%로 감세 약속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영향력 있는 주요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법인세를 줄일 것이라고 관련 소식통은 전했다.
- 그는 어제 목요일 워싱턴에서 CEO들과의 모임에서 현재의 법인세 21%를 20%로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JP 모건, 애플, 월마트 등 1백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만났다.

CNN Business 기사

### [뉴욕시]

## WSJ: New York City Traffic Is Horrendous. There's No Relief in Sight. 뉴욕시 교통난 갈수록 악화

- 뉴욕시에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보행자의 속도만큼 줄어들고 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5월 미드 맨해튼 차량 평균 속도가 4.5마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해 기록적으로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교통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출퇴근 차량, 배달 트럭, 택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 한편 뉴욕주지사가 보류한 미드타운 차량 통행세가 계속 시행될 경우 평소 80만명이 자동차로 미드타운을 통행하는 상황에서 1만대의 운행을 매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됐다.

WSJ 기사

### [미국 생활]

## CNN Business: These cities are now so expensive they're considered 'impossibly unaffordable' 미국과 호주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도시들

- 지난 20년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 연례 인구통계학 국제 주택 경제성 보고서(Annual Demographic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Report)는 미국 서부 해안과 하와이의 도시들을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분류하며, 많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주택 가격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가 가장 비싼 도시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하와이의 호놀룰루도 6위에 올랐다.
- 한편, 호주에서는 시드니와 멜버른, 애들레이드(Adelaide)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도시 순위에 올랐다.

CNN Business 기사

### [휘발유]

#### **CNN Business: Gas prices are cheaper than last summer and miles away from the nightmare of 2022**

#### **휘발유가, 작년 여름보다 낮다 ... 2022년의 악몽에서 회복**

- 정확히 2년 전 금요일, 휘발유 가격은 전국적으로 갤런당 5.02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의 유가 급등은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자들을 겁에 질리게 했으며, 가계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이는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전국 물가를 9%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 AAA에 따르면 이번 목요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에 세운 기록보다 1.56달러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이 시점보다 13센트 낮은 가격이다.
- GasBuddy의 석유 분석 책임자 De Haan은 "우리는 먼 길을 왔다. 2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 [글로벌 경제]

#### **CNBC: Fears are rising ocean freight rates may surpass \$20,000 with no relief for global trade into 2025**

#### **국제 선박 운임 2만불 초과 우려... 내년에도 회복 힘들 듯**

- 아시아 극동에서 미국까지 국제 해상 운임이 월간 대비로 36%~41% 상승했다. 반면에 올해 항공 화물운임은 9% 상승세를 보였다.
- DHL에 따르면 이같은 해상 운임 상승은 내년 초 음력설까지 회복되기 힘들고 일부 해상 운임은 2만불에서 코비드가 한창때였던 3만불 사이에 예상된다.
- 홍해 사태에 따른 선박 선복량 부족과 아시아로부터의 항해 취소 사태로 현물 선박 운임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 화물 주문은 월간 대비 48% 감소했다.

##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Musk Answers Tesla Faithful With Trillion-Dollar Robot Prophecy****머스크, 테슬라 주주들에게 1조불 규모 '로봇' 전망 제시**

- 어제 목요일, 테슬라의 법률 고문은 투자자들이 머스크에게 5백58억 달러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머스크는 회사의 로봇 제작 노력이 언젠가는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주들에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생산 라인 끝에서 배터리 셀을 운송 컨테이너에 넣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연례 회의에서 팔로알토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꽤 많은” 로봇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머스크는 이 로봇들이 내년까지 제한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간 약 1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테슬라의 로봇이 미래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Microsoft Pulls Back Wide Release of Criticized Windows AI Tool****MS, 개인용 컴퓨터용 Windows AI 기능 출시 연기**

-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 보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 컴퓨터용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 '리콜(Recall)'의 공개를 철회하고, 대신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 리콜은 지난 5월에 소개된 기능으로, 사용자가 PC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기록하여 이메일 분류나 파일 검색과 같은 작업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6월 18일에 리콜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는 윈도우 인사이드 프로그램의 일부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웹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높은 품질과 보안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윈도우 인사이드 커뮤니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리콜의 출시 모델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Bloomberg 기사

## WSJ: Amazon Has Upended the Streaming Ad Market, and Netflix Is Paying the Price

### 아마존, Prime Video 전략 강화로 스트리밍 광고 시장 뒤흔들어

- 아마존이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넷플릭스는 경쟁이 치열한 광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 비용을 낮추고 제품 배치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 아마존은 이에 대응하여 Prime Video의 전체 구독자 기반을 광고 지원 버전으로 바꾸고, 고객들에게 월 2.99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광고 없는 스트리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Prime Video는 대규모 광고 지원 구독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특정 TV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을 구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애널리스트들과 광고 구매자들은 아마존이 광고 가격을 낮추면서 모든 광고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WSJ 기사

## CNBC: Five Below has had a rough year so far. Here's why Five Below, 올해 성장세 둔화와 주가 하락

- Five Below는 2012년 상장 이후 매장 수를 250개 미만에서 1천6백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국 소매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순 매출이 35억 달러를 돌파하여 단 5년 전의 두 배 이상 성장했다.
- 그러나 2024년에는 상황이 변화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재고 손실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에 Five Below의 주가는 52주 최저치로 하락했다.
- Telsey Advisory Group의 수석 전무 이사인 Joe Feldman은 "Five Below의 성장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 그 프리미엄이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 기사

## "5월 PCE도 6개월래 최저 관측..."연준 2회 금리인하 가능성 커"

### CPI·PPI 이어 연준 중시 지표도 예상보다 낮을 듯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 2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데 이어 앞으로 나올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도 전월 대비 0.1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2회 내릴 가능성을 높여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언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3일(현지시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주 공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곧 나올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전월 대비 0.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